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33호 소개

□ 헌법판례동향

유럽인권재판소 판례로 소개된 '법정에 히잡을 착용한 청구인의 퇴정을 요구하는 것이 유럽인권협약 제9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 합치되는지 여부'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법정에 히잡을 쓰고 출입하려는 손해배상 청구인의 퇴정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종교를 표현할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관한 대중선동죄 재판소원' 사건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사실을 부정하는 음성자료를 게시한 심판청구인을 대중선동죄로 유죄판결한 법원의 결정이 독일기본법 제5조 제1항의 기본권(표현의 자유)을 침해한다고 본 사건입니다. 그리고 '공법상 수용된(정신병) 환자의 결박에 대한 헌법적 요청' 사건은 공법상 수용된 환자를 침대에 결박하는 조치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법관유보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기지국 기록을 통한 휴대폰 위치정보의 수사와 프라이버시의 보호' 사건은 정부가 휴대폰의 위치정보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4조의 수색이며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결정(헌재 2018. 6. 28. 2012헌마538)과 비교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의 '강제유치된 보호대상인 성인의 후견인 등에게 강제유치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1789년 인권선언 제16조에 합치되는지 여부' 사건은 강제유치를 당하고 있는 보호대상인 성인의 후견인 또는 재

산관리인에게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형사소송법 규정이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6조에서 도출되는 방어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건입니다. 벨기에 헌법재판소의 '체포영장에 예심판사의 서명이 결여된 경우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한 개정사항의 위헌 여부' 사건은 체포영장에서 판사의 서명은 본질적인 성격을 가지는 형식이며, 이와 같은 서명이 결여된 경우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하는 조항을 폐지한 개정법률조항은 벨기에 헌법 제12조(개인적 자유)에 반한다고 본 사건입니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스니가와(砂川)사건 재심청구사건' 사건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일본 법원의 입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세계헌법재판기관 소개

아프리카의 앙골라 헌법재판소와 이집트 헌법재판소를 소개하였습니다.

□ 언론 속의 세계헌법재판 및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

2018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언론 기사 속에 비친 세계헌법재판동향을 모아 놓았습니다.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에서는 최신 학회지에 실린 세계헌법관련 논문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 국외통신원 소식

독일 통신원 소식으로 소개된 '분권과 협치 : 독일 연정의 가능성과 한계 - 독일 난민을 둘러싼 연방수상과 내부장관의 대립을 계기로 -' 는 연정제도를 특징으로 하는 독일의 의원내각제가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